

대대리포사격장 32년만에 이전 합의

국민권익위 고성군청서 현장조정회의 개최 ... 105mm 이전지 선정 어려움 예상

고성군의 오랜 숙원 가운데 하나인 대대리 포사격훈련장 이전 문제(본지 29호, 30호, 33호 보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으로 포 사격이 시작된 1980년 이후 32년만에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달 29일 고성군청에서 대대리포사격장(면적 31,944㎡) 이전을 신청한 주민 대표와 피신청인(육군 22사단장, 육군 8군단장, 육군 제1야전군사령관, 강원도 고성군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조정회의에서 양측은 ▲ 130mm 포는 2011년 11월 30일부터 사격을 중단하고 ▲ 155mm 포는 대체지가 조성될 때까지 연간 총 6일로 제한하며 ▲105mm 포는 가능한 다른 지역에서 사격하되, 군부대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사격장 이전지를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사격장 이전 사업을 2013

년~2017년 또는 2014년~2018년 국방중장기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이전 전이라도 고성 중·고 시험 기간에는 대대리포사격장에서 일체 포 사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날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국민권익위 김영란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로, 군(軍)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40년 이상 지속되어온 주민과 학생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조성될 새로운 포 사격장 선정이 결코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고성군이 커다란 과제를 떠안게 됐다.

실제로 지난 2005년 9월 군부대에서 간성을 해상리와 거진읍 초계리 일대를 이전 대상지로 잠정 결정해 통보했으나, 2006년 11월 사전 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에서 현지 주민들의 반대가



지난달 29일 고성군청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대대리포사격장 이전을 위한 현장조정회의' 결과 합의를 이끌어낸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육군 22사단장, 이영일 고성군번영회장,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황종국 군수, 육군 8군단장 참모장.

심해 무산된 경험이 있다.

대대리포사격장은 1972년 군부대에서 항공작전을 위해 비행장을 설치했다가 작전환경이 바뀌면서 1980년부터 지금까지

포 사격장으로 사용하면서 연평균 약 60일간 사격을 실시해왔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정도의 포 소

음에 시달려 왔고, 사격장에서 불과 450m 떨어진 고성 중·고(581명 재학) 학생들도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학습권 침해해 받아왔다. 최광호 기자

대대리포사격장 이전 조정·합의 내용

가. 육군 22사단장과 육군 8군단장은 대대리 포사격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130mm 포는 2011년 11월 30일부터 대대리 포사격장에서 사격하지 않는다.

2) 155mm 포는 2013년~2017년 또는 2014년~2018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대체지(총용사격장 일원)가 완공될 때까지, 해상사격 등 연간 총 6일만 사격한다.

3) 105mm 포의 대대리 포사격장 사격일수는 2012년 2월 최초 주민설명회에서 신청인 대표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육군 22사단 주관하에 고성군수와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105mm 포 사격장 이전 대체지를 선정하고, 사격장 이전 사업을 2013년~2017년 또는 2014년~2018년 국방중기계획에 편성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전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한다.

5) 고성중고 시험 기간에는 대대리 포사격장에서 포 사격을 하지 않는다.

6) 각 포 사격장 대체지 조성 완료 후에는 대대리 포사격장에서 일체 포 사격을 하지 않는다.

7) 육군 22사단장은 육군 8군단장에게 대대리 포사격장 이전사업이 2013년~2017년 또는 2014년~2018년 국방중기계획에 편성될 수 있도록 건의조치하고, 육군 8군단장은 육군 22사단의 건의사항을 육군 제1야전군사령관에게 건의하여 대대리 포사격장 이전 사업이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국방중기계획에 편성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8) 반기 1회(6개월에 1회) 대대리 포사격장 이전 추진상황을 지역 주민대표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한다.

나. 육군 제1야전군사령관은 대대리포사격장 이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육군 8군단장의 건의사항인 대대리포사격장 이전사업이 2013년~2017년 또는 2014년~2018년 국방중기계획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육군본부에 건의하여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

2) 군사령부 차원에서 대대리포사격장 이전사업과 관련된 각종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조치한다.

다. 강원도 고성군수는 대대리포

사격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육군 22사단장과 육군 8군단장이 대대리포사격장 이전 대체지를 원만하게 선정할 수 있게 최대한 협조하고, 이전사업에 적극 지원하고 조치한다.

2) 육군 22사단장과 육군 8군단장이 반기 1회 주관하는 대대리포사격장 이전 추진상황 설명회에 함께 참여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극 조치한다.

3) 기타 대대리포사격장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육군 22사단장과 육군 8군단장의 각종 필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고 조치한다.

라. 기타 대대리포사격장의 사용 및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신청인 대표, 피신청인(육군 22사단장, 육군 8군단장, 육군 제1야전군사령관, 강원도 고성군수)들이 상호 협의하여 조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포사격장 이전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참여 관리한다.

※본 조정 합의의 내용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한 이행청구권이 있다.

대대리포사격장 설치부터 이전합의까지

- 1972년 : 군부대 항공작전 위해 비행장 설치.
- 1980년 : 작전 환경이 바뀌면서 포 사격훈련장으로 사용.(현재까지 32년간 운영)
- 1994년~2004년 : 고성군과 고성군의회에서 총 3회에 걸쳐 군부대에 대대리 포사격장 이전 요청.
- 2005년 9월 : 군부대에서 간성을 해상리와 거진읍 초계리 일대를 이전 대상지로 잠정 결정해 통보.
- 2006년 11월 : 사전 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 개최. 현지 주민들 심한 반대로 무산.
- 2008년 8월 : 고성군 군부대에 대대리 포사격장 이전 타당성 검토 재차 요청. 그러나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흐지부지.
- 2011년 8월 : 타 지역 부대까지 대대리에서 포사격을 하면서 주민들 다시 이전 요구 목소리 나와.
- 9월 초순 : 국민권익위에 민원 신청을 하기로 하고, 최영섭 대대리 이장 등이 포사격장 이전 신청을 위한 주민 서명 활동 돌입.
- 9월 6일 : 지역주민 및 학생 등 1,320명이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에 대대리 포사격장 이전요구 민원 접수.
- 9월 7일 :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이 현장을 방문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 밝힘.
- 10월 7일 : 고성군과 군부대 합동 포사격 소음 측정 실시. 측정 결과 4개 지역에서 모두 가족 등의 피해보상 기준치인 60dB를 훨씬 넘는 결과가 나오.
- 11월 29일 : 국민권익위 김영란 위원장 고성군청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참가한 가운데 조정회의 개최, 이전 합의.